기후위기 알리는 '멸종저항' 번지다

런던 불교도, 전 세계 대대적인 시위 동참 '눈길'

박정현 객원기자

27개국 60개 도시서 진행되는 XR운동에 불교도들 직접 나서 정부에 대응책 마련 촉구하며 의도적 교통 방해… 경찰 제지

영국 런던 불교도가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 XR)' 운동에 동참했다. XR운동은 각국 정부에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급진적 환경운동 단체의 시위다. XR운동 참가자들은 전 세계 주요 도로에서 시체처럼 드러누워 스크럼을 짜는 등 의도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며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런던의 불교 지도자 및 불자들이 10월 7일(현지시간) XR운동에 동참했다.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27개국 60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조직적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것이다. 이른바 'XR불교운동'이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각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생태계가 전례 없는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최근 UN의 과학 보고서 결과에 따라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한 불교도들은 "기후변화 위기는 가장 끔찍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구의 대량 멸종 가능성은 우리가 오래 잊어 온 진실을 직면하게 한다. 그 진실은 바로 모든 것은 전부 연결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그동안 이 세계를 공유하는 (인간 외) 생명체의 놀라운 은총과 아름다움을 망각했다. 이러한 망상적 상태는 결국 인간에게 치명적 피해를 끼칠 것이며, 우리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가자 개개인은 종교인으로서 급진적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보다 인류의 가치를 좇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번 XR불교운동의 주최자 중 한 명인 영국 말버른의 심리치료사이자 불교지도자인 사탸 로빈(Satya Robin) 작가는 시위 참여 후인 8일 페이스북에 "기독교, 무슬림, 불교도들이 멸종저항을 위해 모였다. 최소 30명의 친구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하지만 나는 우리 중 누가 또 체포될지 동료와 내기를 하며 상황을 즐겼다"며 "내 조카들은 내게 '나무를 구해줘서 기쁘다'며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하루 종일 울었다"고 벅찬 마음을 전했다.



런던 불교도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정부에 전하고자 XR운동에 동참한 모습.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XR불교운동에 함께 행진한 기독교도인 홀리-안나 피터슨도 "웨스트민스터 주변 도로를 폐쇄한 게 극단적 행위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이런 조치가 세계 기후의 급격한 위기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기후변화의 피해가 우리 땅과 해양에 미치고 있다는 UN의 과학 보고서를 받았다. 또 아프리카부터 호주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

XR운동은 지난해 10월 영국 남부의 소도시 스트라우드에서 생물물리학 박사 게일 브래드브룩과 농부 로저 할람 등이 마을 사람들과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알리고 각 정부에 유의미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체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단숨에 전 세계 485개 지부를 둔 국제적 환경단체로 커졌다.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도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젊은 세대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는 것은 꽤 옳은 일"이라며 XR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웃주민 억지고소 이겨낸 美사찰

텍사스 베트남 불교사원, 사생활 침해 재판 승소

재산권 및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기소된 미국의 베트남 불교사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결로 승소했다. 10월 4일 미국 텍사스주의 지역언론 '헤럴드 제이퉁'은 사찰과 재판과정에 대한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텍사스주 뉴브라운 펠스 지구에 소재한 베트남 불교사찰 '다오땀 사원'은 지역의 유일한 불교사찰이다. 사찰은 베트남 이주민들의 신행활동과 현지에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그러나 사찰은 이웃주민으로부터 재산권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지방법원에 기소 당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사찰에서 진행되는 불교의식이 항상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면서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부지인 사찰에서 허용되지 않는 농업과 일부 상업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으며, 일부 건물을 비롯해 근접 도로 사용에서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에 사찰 측 변호인은 "원고의 주장은 텍사스주의 종교자유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사찰이 건립되고 지난 4년간 오히려 원고의 재산 가치는 상승했으며, 도로 공유 제한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다오땀 사원 인근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은 "문을 열면 사찰이 보이는 곳에 살지만, 단 한 번도 사찰 의례나 불교도들이 방해된 적이 없었다. 의례도 밤 8시를 넘긴 적이 없다"며 다른 이웃이 사찰을 기소했다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3일 과달루페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다오땀 사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담당한 듀윗 피쉘 판사는 "원고의 주장처럼 다오땀 사원이 종교부지 이외의 상업 및 농업 활동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재산권 침해 역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2명의 배심원단도 단 2명을 제외하곤 모두 종교적인 활동의 일환에서의 농업과 상업으로 판단했다.

다오땀 사원 주지인 헝 반 응우엔 스님은 "다시 도량이 평화롭고 차분한 일과로 돌아갔다"며 판결에 기쁨을 표했다. 신도회장인 안당 씨도 "올바른 믿음이 실현되는 느낌이다. 자비와 친절, 정의가 우선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판결에 감사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조만간 중국 방문 희망"

인도 언론들 인터뷰서 언급
홍콩시위 우회적 지지 표명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10월 2일 인도의 '라이브 민트' '뉴스 18' 등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르면 1~2년 안에 중국에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1959년 티베트에서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라마는 인도 언론에 "다수의 중국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당내의 일부 인사들"이라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중국 정부 내의 많은 인사들이 지난 70년 이상 티베트에 진행해온 정책들이 비현실적인 것을 알고 있다. 달라이라마라는 직책에 대한 힘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다람살라에서 열린 법회에서 설법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달라이라마는 2011년 정치적인 모든 권한을 망명정부에 이양하고, 종교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같은 해 열린 망명정부와의 공식회담을 마지막으로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티베트 망명정부는 롭상 쎙게 수상을 수반으로 두고 있으며, 인도 내엔 약 15만 명의 망명 티베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달라이라마에 대해 '인도의 명예로운 손님'이라며 정치적인 활동과 발언을 장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티베트 망명정부와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상황에 대해 독립이 아닌 고도의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인터뷰에서 "쓰촨성의 일부와 칭하이성을 포함한 모든 티베트 지역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티베트의 문화와 언어, 종교가 보장된다면 중국정부와 함께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달라이라마는 "많은 상황이 변하고 있다. 이르면 1~2년 안에 중국을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도 언론들은 달라이라마의 말을 인용해 "최근 티베트인들 사이에서 달라이라마가 다시 라싸를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달라이라마의 요구처럼 고도의 자치권을 가졌던 홍콩에서 최근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중국인을 비롯한 모든 일반 시민들은 자유를 원한다. 중국이 만약 정권을 유지하길 바란다면 더 강한 규제와 제한이 아닌 더 많은 자유를 언론과 시민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답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 서양학자들이 만든 것"

티베트 현자 삼동 린포체, 더힌두와의 인터뷰서

"'티베트 불교'라는 것은 없다. 불교는 지리학으로 나뉘지 않는다."

티베트 망명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삼동 린포체(Samdhong Rinpoche)가 10월 10일(현지시간) 더힌두(The hindu)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티베트 불교라는 것은 서양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기독교를 말할 때 '영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를 분리해서 말하는가. 불교 역시 지리에 의해 나뉘지 않는다"며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리적으로 불교를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도"라며 "왜냐하면 부처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다. 불교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도인"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불교가 "티베트의 완전한 전통"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나란다(Nalanda), 탁실라(Taxila), 보드가야(Bodhgaya), 사르나트(Sarnath)와 같은 교육센터는 불교의 표준 문학을 생산해 냈다"고 설명했다.


티베트 망명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고승 삼동 린포체. 사진출처=더힌두

삼동 린포체는 4대 삼동 린포체 후신으로 인정받아 7세에 출가했다. 12세 때 티베트 라싸 대풍사원에서 경론을 배웠고, 1959년 중국 침공을 받자 달라이라마와 함께 인도로 망명했다. 현존하는 티베트 최고의 고승으로 명망이 높다.

박정현 객원기자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장 석벽봉

승 정 석화담 승 정 석혜암 원로고문 석법령
원로위원 석일우, 석청산, 석우암, 석도명, 석정호, 석법산, 석법광, 석자광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어산장	석도암
법계고시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청강	의전원장	석법도	비구니회장	석경호
총무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도흥	감찰부장	석성보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자광	사서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덕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호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부회장	석효성	비구니부장	석지현	비구니국장	석충효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정현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공

종단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감 사 성덕 성민 선화
이 사 남산 체법 일두 성만 성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성안 법광

종단법률 자문위원
변호사 김진우(明眞) 법무사 이익렬(雲虛) 세무사 이수열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 ·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임)
총 무 대각심(김경숙)
임 원 혜명심(박현숙)
임 원 보덕심(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이재인)
부원장 혜 담(이정민)
국 장 불심화(정형숙)
무 용 무애심(박순애)
연 출 원각심(도지연)

법사승 임원

경남원장	도혜	충북부장	상학	청주부장	혜원
울산원장	법광	부산부장	혜성	전남부장	혜명
경북원장	성인	경기부장	자운		
법사원장	목암	구미부장	혜진		
홍보부장	원명	대구부장	혜련		
경남국장	성광	포교국장	청운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소현	통영국장	덕인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포교국장	혜림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도연	봉화국장	혜정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Tel 054)682-5808 / Fax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Tel 02)303-5612